

전국 대의원 농축산물 수입개방 적극 저지키로

본회는 지난 2월 24일 오전 11시 양돈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88년도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전동용 회장을 비롯해 72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이날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은 한백용 전무이사과 박대관 감사로부터 '87년도 사업실적 및 감사보고를 받고 ▷'8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88년도 회비부과 기준안 ▷정관 일부 변경안 ▷회원 제명안 ▷미수금 결손 처분안 등을 심의·통과시키는 한편, 결원중인 이사 1명과 임기 만료된 감사 2명을 보선했다.

의안 심의에 앞서 진행된 기념식에서 전동용 회장은 이사회에서 설립이 승인된 경남 의령지부(지부장: 박차수)와 경북 청도지부(지부장: 최재호), 경북 울진지부(지부장: 박상인), 충남 서산지부(지부장: 문승현)에 지부 설립 승인서를 전달했다.

또한 전동용 회장은 지부의 정기총회에서 새로 지부장으로 선출된 ▷안판영 마산지부장 ▷이종열 김포지부장 ▷정성만 파주지부장 ▷나근정 강화지부장 ▷류영빈 전주·완주지부장 ▷지홍만 화천지부장 ▷박차수 의령지부장 등에게 지부장 인준서를 수여했다.

이어 전동용 회장은 '87년중에 협회 발전의 기초가 되는 회원 확충에 적극 노력한 울산·울주지부(지부장: 성정표)와 양산지부(지부장: 방기조)에 「회원확충상」을, 군산·옥구지부(지부장: 박영식)에 「노력상」을 시상했다.

전동용 회장은 또한 '87년도에 지부 단위로 돼지고기 요리경연대회와 시식회, 팜플렛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 돈육소비홍보사업을 적극 전개한 ▷공주지부(지부장: 정일섭) ▷마산지부(지부장: 안판영) ▷밀양지부(지부장: 윤혁태) ▷이천·여주지부(지부장: 박용각)에 「돈육소비홍보상」을 수여했다.

이밖에도 전동용 회장은 '87년도에 종돈능력검정소에 우수한 종돈을 출품, 우리나라 종돈개량에 크게 기여한 송원축산(대표: 기정도)에 「최우수 검정농장상」을, 대현농장(대표: 왕기창)에 「우수 검정농장상」을 시상하는 한편, 임마누엘 유축농산(대표: 윤혁태)에 「최다 출품상」을 시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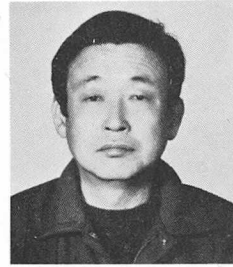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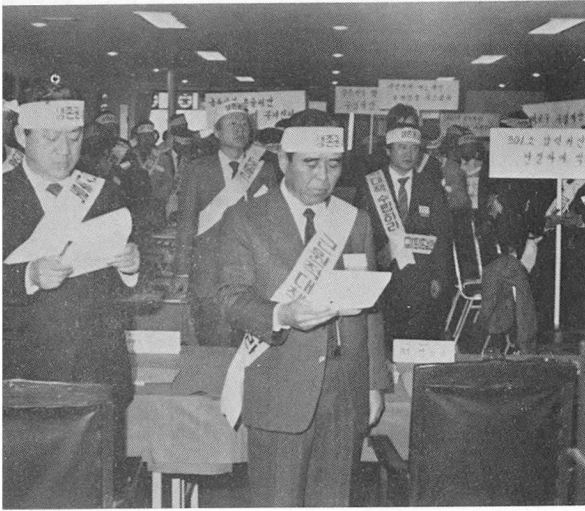
또한 전동용 회장은 '87년도에 특별히 협회와 양돈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한 삼양약화학(주)(대표: 민경우)에 「감사패」를 전달하는 한편, 이명복 경기도협의회장에게 「공로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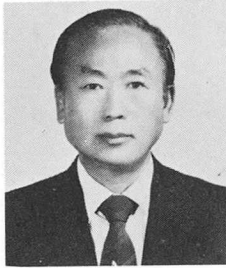
지부조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신순연양(양산지부)과 최은숙양(청주·청원지부), 최정희양(용인지부)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어 전동용 회장은 돼지고기의 효능을 일반 국민들에게 올바로 인식시켜 돼지고기소비확대에 공이 큰 동의체질학회 이종오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한편, 돼지고기를 소재로 한 편지쓰기 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이진영양(당진군 면천국교 5년)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어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농축산물 수입개방저지 결의대회를 갖고 4개항의 결의문과 14개항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생존권 사수」라는 머리띠와 「농축산물 수입개방 저지하여 양축농민 생존권 사수하자」란 어깨띠를 두른 대의원들은 「301조 압력귀신 단결하여 막아내자」「비교우위 좋아하다 우리 농촌 피해된다」「수입개방 주장하는 관변학자 자숙하라」는 등 10여종의 각종 피켓을 들고 농축산물 시장개방을 적극 저지키로 결의했다.



김상호 이사



박대관 감사



김관식 감사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공업화 정책에 소외되었던 양축농민의 간절한 각종 건의사항도 해결하지 못한 정부가 또다시 양축농민을 보호하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그동안 양축농민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생산기반을 무너뜨릴 경우 생존권 사수차원에서 이를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대의원들은 ▷우리는 선진국의 농축산물 시장개방압력이 1천만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탄하며 이를 적극 저지할 것 등 4개항을 결의했다.

또한 대의원들은 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및 생산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선진국의 농업지원 정책에 가름하는 산업지원 정책수립 ▷산업자금의 장기저리융자 등 금융지원 확대 ▷사료 등 생산원자재에 대한 조세 감면 조치 등 14개항의 대정부 건의사항을 채택하고,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선임한 특별분과위원회의 조정을 받아 전국 지부장 일동 명의로 건의서를 작성 제출하기로 했다.

이어 진행된 안건 심의에서 대의원들은 '87년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한편, '88년도 회비부과는 400두 미만 사육회원은 연3만원, 400두 이상인 회원은 기본부과액 3만원에 100두당 1만원씩 가산 부과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6월말까지 회비를 완납하는 지부에 한해

완납금액의 10%를 지부 운영보조비로 교부해 주기로 했다.

또한 정기총회는 '88년도 사업계획안과 총 7억9천8백여만원의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어 정기총회는 현행 정관 제5조 (회원의 자격)를 「본회 회원은 50두 이상의 양돈업자로 한다. 단, 50두 미만의 양돈업자가 본회 가입을 희망할 경우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준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로 변경기로 했으며, 제25조 (이사회 결의)사항중 제9항 「회원의 자격심사」를 빼고 「신규지부의 설립승인」을 넣기로 했다.

또한 정기총회는 회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수원지부의 이만용 회원을 제명하고 2백77만원의 결손처분안을 승인했다.

이어 정기총회는 김상호 제주지부장을 이사로 보선하고 임기만료된 박대관·김관식 감사를 유임시켰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채택한 결의문, 대정부 건의문, '88년도 주요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